國政指標
新韓國 創造
깨끗한 政府
튼튼한 經濟
건강한 社会
통일된 祖國

국정신문

1993년 7월 29일
목요일
週刊 〈非賣品〉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李源宗 · 發行所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편번호 110-021 서울鍾路區 付岩洞 182-1 / 전화(02) 730-1027, 1031 · FAX 730-1034

大田엑스포 과학기술 立國으로 우리의 未來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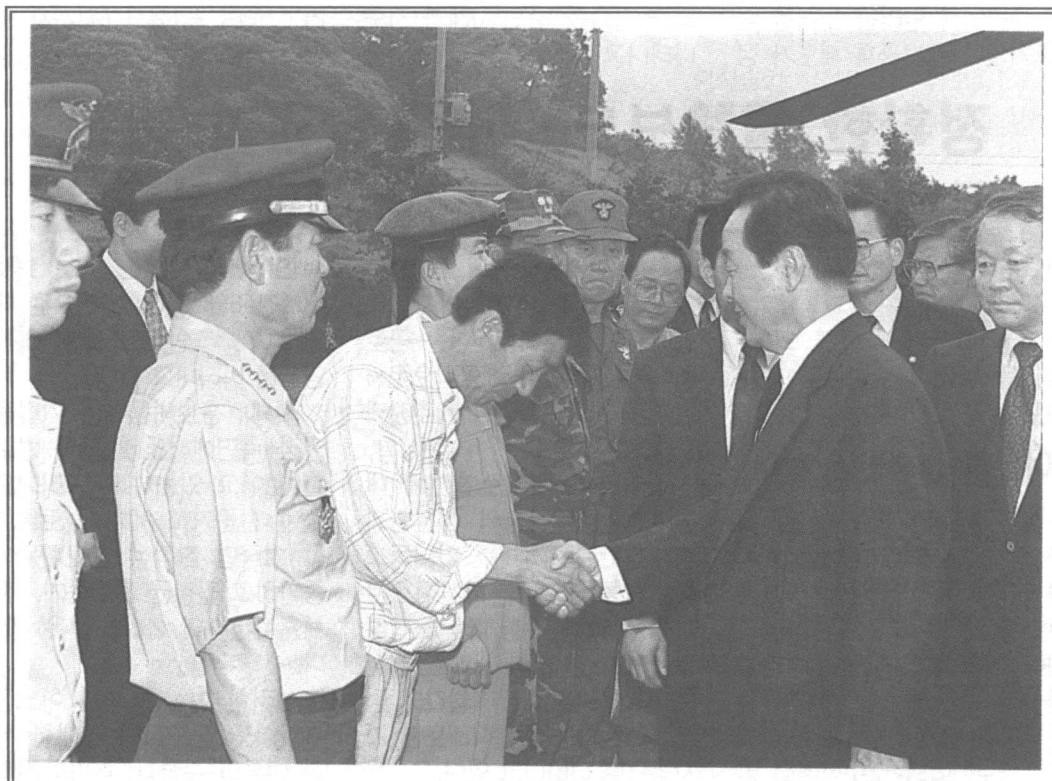
정부 각 부처는 모든 조직력을 가동, 행사 효과의 극대화에 진력하자.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홍보요원이 되어 국민의 관심과 열의, 에너지가 大田엑스포로 쏠리게 앞장서 뛰자.

그리고 기업은 尖端과학기술 경쟁에서, 국민은 친절·질서·청결의 엑스포시민정신을 빈틈없이 발휘하자.

이것이 바로 21세기 통일韓国을 여는 민족의 저력이며 자긍심이다.

미래엔 하이테크와 경제가 동의어가 되어 '하이테크경제'가 곧 국가흥망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하이테크 韓国'에로의 도약여부는 정부와 국민의 자발적 동참에 달렸다. 국민동참, 거기에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다.

〈관련기사 8面〉



金泳三대통령, 民·官·軍구조활동 높이 치하 金泳三대통령은 28일 오후 아시아나항공기 惨事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을 위로한 다음 참사현장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편 民·官·軍 관계자들을 높이 치하했다. 이번에 民·官·軍이 헌신적인 인명구조활동을 펴 큰 성과를 올린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요즘 世態속에 의연히 '공동체의식'을 실천한 빛나는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다.

국민同參으로 先進國진입 계기 삼아야
정부조직력·홍보기능 總力 발휘할 때

"엑스포는 인간과 미래, 인간과 우주, 인간과 기술이 만나는 시간…"

'세계인의 축제' 大田엑스포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항·항만은 물론 거리마다 엑스포깃발이 펄럭인다. 세계가 韓国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이미 G7을 비롯, 1백10개 국가와 IOC 등 28개 국제기구의 전시장이 완료되어 엑스포사상 최대규모 행사기록을 세우고 있다.

사상 최대규모 행사

大田엑스포는 변화하고 개혁하는 문민정부의 국민에게 '새로운 跳躍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엑스포현장을 돌아본 金泳三대통령은 "엑스포는 인간과 미래, 인간과 우주, 인간과 기술이 만나는 시간"이라 말하고 "大田엑스포를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를 위해 '화려한 훗날을 바라보는 시작의 첫걸음'으로 선진시민의식부터 갖출 것을 당부했다.

大田엑스포는 88서울올림픽 후 5년만에 갖는 국제잔치로 우리 민족저력과 자긍심을 또 한번 세계에 떨치고 국제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는 88올림픽때 6·25폐허를 딛고 일어선 위대한 韓国民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제 또다시 '93大田엑스포를 통해 세계 최첨단과학기술과 교류하며 '민족 再跳躍'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의 과거·현재와 첨단과학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한눈에 보며 21세기 韓国의 청사진을 구상하는 기회를 잡은건 우리 민족에겐 행운이다.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에 한반도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欧美 선진국들은 韓国을 '아시아의 맹수'라 평가하며 단순한 장사대상이 아닌 정치·경제·과학기술 등 총체적 동반자로 밀착해오고 있다.

이미 엑스포방문예약 국가수반급만도 10여명으로 大田엑스포가 건국후 최대 외교·통상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러시아연방은 大田엑스포 기념 소유즈우주선을 발사, 옐친 메시지가 담긴 캡슐을 西海상에 떨어뜨린 후 大田박람회장으로 옮겨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회를 잡는 민족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갈림길에 와 있다.

세계질서는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능동적·역동적으로 대변혁의 과정을 추구하고 있다.

日本은 도쿄(東京)올림픽개최에 이어 1970년 오사카(大阪)엑스포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진화에 박차, G7진입의 길을 열었다. 大田엑스포는 1893년 시카코엑스포참가 1백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민족대화합의 한마당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이냐 끝내 중도국에서 주저앉고 마느냐는, 최대 기회로 주어진 이번 大田엑스포의 성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1백년 후 우리의 후손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엑스포는 단순한 하나의 축제나 잔치가 아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하며 새로운 세계를 수용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 우리의 '삶의 질'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게는 꿈을, 젊은이들에게는 포부를, 기성세대에겐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30여년동안 몸에 배어온 '나본위'의 이기주의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

국민모두 행사요원

상대를 인정하고 '우리'라는 共同体의식을 쌓아서 국가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말겠다는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大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公職者는 물론 올림픽 때와 같은 汎국민적 동참의식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올림픽 때 멋진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적 행사인 大田엑스포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尖端과학기술의 무대이다.

紙面안내

보훈처「臨政과 文民정부」세미나 2면
産業技術 드라이브정책 배경과 의미 4면
美·북한 核회담 평가와 우리의 외교방향 3면

정부시책情報 공개 활성화

각 부처 홍보활동 실적 분석

정확한 言論보도·국민 알권리 충족
月평균 2천25件 발표… 弘報 적극화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시책정보의 과감한 공개등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공보처가 지난 3월 이후 4개월동안의 정부 각 부처 홍보활동에 대한 분석·평가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따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 정부시책의 구상이나 입안·결정·집행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여론수렴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홍보활동도 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여론의 정책반영 확대

최근 対국민 홍보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각부처의 対언론 창구인 공보관실의 업무가 폭주, 대응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공보관실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조, 공보관 위상제고, 공보인력의 소수정예화 및 국민여론 수렴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의지 그리고 정부정책의 내용은 소상히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여론을 파악,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근 공보처에 설치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각 부처의 정책에 관한 언론의 반응을 해당 부처 장관에게 제공하는 등 여론의 정책반영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이견이 노출되어 정부의 정책추진에 혼선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부처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협의 등을 통해 사전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관련 홍보예정사항을 공보처에서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는 홍보에 대한 인식 및 발상의 대전환과 함께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고 홍보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기동성 있게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지난 3월이후 4개월간의 정부 홍보 활동을 분석해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각부처에는 홍보대책회의운영 브리핑의 정례화 부처별 홍보교육실시 사전홍보계획 수립·시행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정보홍보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둘째로, 적극적 홍보활동 및 행정공개로 인해 홍보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이후 4개월동안의 월평균 총 홍보활동 건수는 2천25건으로 92년 1월이후 93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월평균 총 홍보활동건수 1천5백85건에 비해서 27.5%가 증가했다.

매월 홍보량 증가추세

이 가운데 보도자료배포는 월평균 8백24건에서 9백47건으로 15%증가하고 브리핑·기자회견은 월평균 1백1건에서 2백46건으로 143% 증가하였다. 그리고 93년 3월에서 6월까지 월별 총 홍보활동 건수는 3월 1천5백63건 4월 2천32건 5월 1천8백81건 6월 2천6백26건으로 매월 20.7%씩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홍보내용이나 기법등 질적 측면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TV·라디오 출연 신문기고 세미나 토론회 등 対국민 직접성 홍보활동이 증가하고(월평균 39%증가, 전체홍보건수의 25.5%점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어느정부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 여론의 수렴과 국민의 직접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이다.

'臨政과 文民정부' 주제 세미나

보훈처 주관, 30일 세종문화회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보훈처가 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문민정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上海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재확인,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해외독립운동가 발굴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오는 8월에 있을 상해 임시정부 선열 5位의 봉환 및 안치에 앞서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다시금 되새겨 국민적 공감대를 넓힌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5일에 있을 독립운동가 유해 송환은 지난해 8월 韓·中수교이후 정식외교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 지난 5월 中国의 錢其琛 외교부장 방한때 金泳三대통령의 제의로 전격 논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中国 上海에 선열유해봉환을 위한 실무협의단을 파견했다.

한편 朴永錫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세미나의 참가자와 주제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延馥교수(서울교대)/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배경과 민주공화정치

▲李炫熙교수(성신여대)/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문민정부

▲趙恒来교수(숙명여대)/重慶시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

이밖에 金雲泰교수(서울대)를 비롯한 6명의 학계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共同體의식개혁과 우리의 姿勢'
吳隣煥공보처장관, 共改協세미나 주제발표要旨

吳隣煥 공보처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제1차 세미나에서 '共同體意識改革과 우리의 姿勢'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변함없는 개혁추진을 다짐하는 한편 사회 각층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吳장관의 주제발표 要旨. 〈편집자註〉

최근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나면서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진 것 같다며 내각의 분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강도높은 司正정국이 지나간 뒤 우리 모두가 개혁분위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짚어볼 때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처럼 개혁의지나 개혁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1백일 동안의 초기개혁 단계가 급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로 접어든 형국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본격적인 개혁은 두 줄기의 큰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으로부터 점화된 개혁이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국민의식 개혁으로 이어지며 국민적 추진력을 얻을 때 우리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인 종교인 언론인 학자 공직자 등 知識人層이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을 마무리하는 원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이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가 벌이고 있는 민간주도의 국민의식개혁운동은 그만큼 크나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뜻에서 '共改協'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에 대해 정부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共同体意識이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이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자각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결코 공동체의식이 집단 속에 자신을 매몰시키거나 집단을 위해 개인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집단우선주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金泳三대통령이 제시한 '신한국'의 목표중에는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시대를 맞아 가족이기주의와 집단·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진작해 가는 것이 곧 오늘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식개혁의 큰 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공동체의식을 진작하는 요소로 어느 학자는 자율성의 확보, 창의성 공정한 경쟁질서확립, 易地思之 함양 등 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네 요소는 선진민주사회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의 성공을 담보하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냉엄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고 번영된 통일민주국가를 성취시킬 원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공동체의식개혁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번져 우리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반개혁적 관행과 사고를 추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改革마무리 원동력 국민으로부터"
가족·지역·集團이기주의 극복이 의식개혁의 큰줄기

强·溫 양면전략 탄력對應 고수

美·북한 核회담 評價와 우리의 외교방향

美와 공조체제 구축 南北대화 진전에 도움
核문제관련 北의 진정한의도 속단 금물

뉴욕회담에 이어 제네바에서 北韓 核문제 해결을 위한 美·北韓 접촉이 있었다.

회담결과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이나 일부 異見이 있는 듯하다.

核문제와 관련한 北韓의 意圖에 대해 두 갈래의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 있다.

첫째는 北韓이 체제존립을 목표로 NPT탈퇴 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核개발을 의도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核개발 의혹을 協商의 무기화 하여 가급적 많은 양보를 얻어내어 北韓의 특정 외교목표들을 달성해 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절히 병행 또는 복합 추진하거나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韓 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은 우선 北韓의 첫번째 시나리오를 상정한 核개발 저지라는 安保的 접근방법이고 다음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상정한 外交的 협상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우리측도 두 가지 시나리오의 병행·복합내지 순차적 추진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北韓의 의도와 우리측의 대응에 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단순화시켜 놓고 볼 때 '核개발과 이에 대한 응징'이라는 안보적 차원에서 대결로 이끌어 가냐, 아니면 외교적 협상으로 이끌어 가냐를 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

뉴욕, 제네바에서의 美·北회담의 결과는 '핵개발과 그 응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한 안보적 대응에 의존하지 않고 北韓을 외교적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우선 게임의 選擇이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뉴욕과 제네바회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양자적, 다자적 외교노력들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보며 그중에서도 군사적 제재가능성을 회피해가면서 美·北회담을 적극적으로 종용했던 우리 外交努力도 올바른 선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쟁점

다음으로 일단 이끌어간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더 큰 몫을 차지하느냐에 관해 일부 異見이 있는 듯하다.

분쟁을 무력이 아닌 협상으로 풀고자 할 때에는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득이 되는 타결은 있을 수 없다.

협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꼭 얻고 싶은 것이 있고 상대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뉴욕과 제네바 협상에서 美国과 北韓은 각자가 얻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어 냈기 때문에 妥結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럼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자. 뉴욕회담에서 北韓으로 하여금 NPT탈퇴를 留保시켰고 금번 제네바회담에서는 NPT 잔류를 재확인하고 IAEA의 全面査察을 위해 협의한다는 약속이 있었다.

아울러 南·北 비핵화 공동선언의 履行의 중요성도 재확인하였다.

北韓은 NPT 체제를 인정하고 나아가 사찰을 위한 협의를 갖기로 약속한 이상, 核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으면 IAEA의 사찰과 UN 安保理의 制裁라는 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

核문제에 관련한 北韓의 진정한 의도는 속단하기도 어렵고 또 끝까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対応도 확고하면서도 탄력적이어야하므로 우리는 강·온 양면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금번 제네바 회담은 北韓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유도하는 확실한 動機와 名分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이 사찰을 받아 들이면 美国과 이미 약속한 몇가지를 포함한 당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北韓의 이러한 수확은 앞서 말한 이유에서 바로 우리의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北韓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을 때만 이와 같은 예상 수확을 수중에 넣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說得과정은 그 자체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 채찍이 필요해지게 되는 경우 관련국과의 공조체제를 확보하는데에도 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美·北韓 회담으로 마치 韓国은 対北관계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은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다.

의미있는 南北대화의 진전없이는 北韓이 원하는 美·北韓관계의 진전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뉴욕과 제네바 접촉과정에서 분명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韓·美양국은 분명한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共助体制는 더욱 확고히 구축된 바 있다.

北韓은 금번 합의사항을 그대로 移行함으로써 우리 민족 모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協力하게 되기를 바란다.

權 丙 鉉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社會紀綱확립 단속 한층 강화할 것"

제34회 국무회의

〈7월22일〉

22일 열린 93년도 제34회 국무회의에서 黃寅性국무총리는 자율사정·사회기강 확립과 관련,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관장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시정해나가야 하며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단속도 한층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의결안건 및 주요의안별 토의 내용.

의 결 안 건

◇대통령령안(9건)

재무부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改)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唐麵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改)

상공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改)

교통부 ▲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정(改)

◇일반안건(8건)

경제기획원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광주민주화운동관련 지원경비)

내무부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공고

討 議 내 용

◇자율사정·사회기강 확립

▲李經植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舊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새 정부에서 사정한 것을 보고 새 정부는 뭘 하나 하는 비판이있을 수 있음. 앞으로 新·舊정부를 구분해 사정결과를 발표하면 국민에게 새 정부를 잘 알릴 수 있음.

▲李海龜내무부장관=종합심의제는 민원1회방문처리와 공무원 의식변화를 통해 官위주에서 민간위주로 전환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갖고 官에 두 번 오지 않게 하는 것임. 모든 것이 汎정부적으로 이뤄진다면 공직사회의 의식변화와 행정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韓完相부총리겸 통일원장관=사범 검거율을 발표해 新정부와 과거정부를 비교 부각시킬 필요 있음.

▲黃총리=각 부처별 사정활동에 관심 많이 가져주길 바람. 전체적으로는 비리척결이 50% 이상 증가됐고 면직도 예년에 비해 배가 증가됐음. 무사안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며 기관장들이 지도력 발휘해 시정해나가야 함. 사회기강확립단속도 많은 성과 있었으나 앞으로 더 강도높게 해나가야 할 것임.



◇ 23일 일반에 첫 공개된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상설전시실.

정부기록물 상설展示室 개장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는 23일 '기록물 상설전시실(종로구 황성동 합동청사 1층)'을 마련, 이날부터 정부 보존 정기관의 주요문서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시대 및 臨政과 관련된 희귀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문서·사진류 8百여점 공개

주요문서와 사진류 등 시청각 자료 8백여점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자료는 주로 정부수립 이후 각급 행

상설전시실에는 '대통령 기념코너' '청백리코너' 등 특별코너와 정부기능에 따른 18개 주제별 코너로 구분, 기록물들이 전시돼 있다.

技術力증진 經濟재도약 다짐

産業技術드라이브 정책 배경과 의미

木曜해설

産·學·硏 공동연구·지방中企 기술지원 강화

97년까지 R&D에 1兆투자… '技術전쟁' 대처

최근 들어 국제경제환경은 자국의 경제력 확대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93년 우리나라의 평균 산업기술 수준은 선진국(100)에 비해 4.26에 불과하고 조립·가공기술을 제외한 설계·소재 등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91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 투자는 55억불로서 美国 日本 등 선진국의 8분의 1에서 12분의 1에 불과하며 美国GM 1개사의 58억불에도 못미치고 있고 기술력의 바탕이 되는 연구개발 인력의 수도 기술선진국에 비해 2분의 1에서 12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본·노동·기술중 기술이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양적 성장에 주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비 선진국의 4%수준

따라서 대내적으로 기술력 부족, 기술투자 미흡과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 부족 등 기술개발 하부구조의 취약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기술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와 中国 등 후발개발도상국의 맹렬한 추격 등 대내외적으로 격화되어가는 기술전쟁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가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산업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올해를 '산업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의 元年으로 삼아 무역통상 중소기업 입지 등 과거 '수출드라이브' 시대의 조직과 정책수단을 과감히 산업기술정책과 접목시켜 '산업기술드라이브' 성장 지원체제로 재구성키로 했다.

또 시장수요 지향적 산업기술정책에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수단을 총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 금년 말까지 産·學·硏·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의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거쳐 '산업기술진흥종합대책'을 수립, 이번 추진방향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른 산업기술정책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술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기술정책 자문단'과 '기술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기구로 활용한다.

또 상공자원부 전조직을 산업기술지원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우선 상공부 공업국의 기술정책기능 강화와 함께 공진청·특허청·생산기술연구원 등 상공부 외청 및 산하기관의 기술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종합 추진하는 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안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등 정부지원 자금의 확대와 함께 상공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자금도 확충, 97년까지 1조원 이상을 산업기술개발에 지원토록 할 것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술개발자금확대 유도와 함께 정부지원자금과 국책은행자금간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화, 기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개발자금 확대 유도

정부지원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기술개발 단계별(연구개발 시작품제작 사업화 양산화) 기술유형별(공통애로기술 중기거점기술 첨단대형기술 시스템 표준화기술)로 세분화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자금 지원조건 등을 차별화, 효율적으로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개편·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필요한 기술정책의 수립, 전략적 기술개발, 기술개발자금의 획기적 증대, 기술인력 정보 등 기술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산업기술 발전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秋 俊 錫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

生活정보지·尖端기술전문지 급증

定刊物 등록현황 분석 6월末 현재 總7천3백40종

올들어 增加率 둔화… 似而非언론 근절 추진효과

지난 5~6년 사이 정기간행물(이하 定刊物)등록이 매년 평균 24%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등록된 定刊物가운데는 지역생활정보지, 컴퓨터 등 첨단기술관련 전문지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처에 따르면 6월30일 현재 등록된 定刊物은 모두 7천3백40종으로(市·道등록 1천37종포함) 이 가운데 日刊이 1백16종, 週刊 2천54종, 月刊 2천9백65종, 隔月刊이하 2천2백5종으로 집계됐다.

이들 定刊物들은 88년 定刊物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2천4백여종)보다 3배이상 늘어났으나 과당과열경쟁의 부작용과 부실경영에 따른 일부 사이비언론화라는 사회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이후 사회전반의 개혁분위기와 정부의 사이비언론 근절대책 추진으로 定刊物등록 증가율(올상반기)이 前年対比 5%에 머물렀다.

등록현황

▲日刊·통신

87년 対比 2백62%가 증가,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중에는 신규등록이 격감했다.

금년 6월末 현재 日刊은 중앙종합일간 14건, 지방 종합일간 54건, 특수일간 32건, 통신 2건, 외국어일간 3건, 기타 간행물 11건 등 모두 1백16건이 등록돼 있으나 이중 96건이 정상발행되고 있고 휴간 4건, 발행중단 11건, 미창간 5건 등 20건이 비정상발행상태에 있다.

▲ 週刊

87년에 비해 8백8%가 증가, 他定刊物에 비해 대단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6월말 현재 92년 対比 11%가 늘어난 2천54건이 등록돼 있다.

▲ 月刊·季刊·年刊

6월末 현재 5천1백70건으로 87년의 2천1백54건에 비해 140%증가했다.

88년에 31% 증가한 뒤 89년부터 점차 낮아지다가 금년(1백76건)에 등록이 현저히 줄었다.

▲지역별

서울에 定刊物의 71%가 몰려 있으며 서울을 포함, 仁川 경기도 등 수도권에만 80%가 등록돼 있어 심한 중앙 편중 현상을 나타냈다.

▲발행실태

총등록刊行物가운데 발행중단·미창간 등 미발행 간행물이 1천8백80건(25%)에 달했다.

또한 폐간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93년 상반기 중 3백30건(23%)이 폐간했다.

▲ 신규등록

올해 신규등록은 6백95건(6월 현재). 주간지의 경우 신규등록이 3백46건으로 전체 등록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行政메모

軍통제구역 휴양시설로 개발 釜山市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軍 통제구역인 이기대 몰운대 송정 등 해안에 위치한 7개 공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在日동포 전통예절교육 실시 慶南

경상남도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경남출신 在日동포 2·3세 2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전통예절에 관한 교육과 金海 梁山 慶州 산업시찰 및 독립기념관 견학을 추진한다.

미취원 幼兒어머니 연수회 개최 全北

전라북도 교육청은 하계방학기간 동안 자녀가 아직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은 만2~3세 유아의 어머니 2백여명을 대상으로 '취원전 유아어머니 연수회'를 개최키로 했다.

초등교원 4백명 교수력향상 연수 全南

전라남도 교육청은 하계방학기간을 이용, 光州교육대학 부설 초등교원연수원에서 전남도의 체육 음악 미술 자연 실과 등 5개 교과목 담당교사 4백명을 대상으로 과목당 10일간씩 교수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政府에게 言論에게

'環境實踐文化'의 건전한 유도를



黃山城 〈환경처장관〉

에코토피아(Ecotopia)라는 말이 있다.

에콜로지(Ecology, 생태학)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이다.

즉 인간이 추구하는 環境的으로 最適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理想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環境의 質은 어떠한가.

'수돗물은 못 믿는다'하고 '대도시의 스모그로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하며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다 지구환경문제까지 가세하여 환경문제는 복잡·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구환경문제는 冷戰종식이후 붕괴된 이데올로기의 자리를 차지하여 최대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공평한 지구차원의 同伴者的 관계를 위한 協力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은 환경을 貿易規制의 무기로 한 新覇權主義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냉철한 시각과 새로운 감각이 필요한 때다.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은 口號的이나 抽象的이 아니라 具体的이고 實踐的이어야 한다.

많은 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숨가쁜 대응도 신속히 간파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환경차원에 대한 效率的·經濟的 관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다행히 오늘날 환경의 위기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소득증가에 상응하여 이제는 쾌적한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投資와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누구나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구호상으로는 환경보전을 외치면서도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소극적이다.

예컨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만연하고 쓰레기 수거료,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가계부담 및 물가인상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理念과 實際가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에 言論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을 때에는 언론은 환경오염 피해를 폭로하고 그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언론은 이제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역할과 실천방안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환경의식이 아무리 높다해도 생활가운데 實踐文化로 깊숙히 정착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나 '매연 줄이기 운동' 등 환경운동의 求心体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言論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보는 듯하여 찬사를 드려마지 않는다.

앞으로도 언론은 단순한 오염피해의 告発性 報道보다는 그 원인이 우리 모두에게서 찾아야 함을 일깨우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討論의 場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언론이 反社會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告発機能뿐만 아니라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여론광장

■ 投稿를 기다립니다

國政에 관한 제언 또는 주장 등을 원고지 3매내외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주소·직업·전화번호·계좌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統一, 理想아닌 현실 忍耐갖고 추진해야

통일은 우리 겨레의 염원이다. 한민족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고전적 이데올로기보다는 현대적 민족주의를 앞세워 민족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中国과 臺灣은 통일을 위해 만나서 대화하고 물자교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南北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나누지 못하는 민족적 비극을 겪고 있다.

오히려 南北간의 단절은 언어·풍습 등 기초생활에서 생각·정서 등 정신문화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가고 있다.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봉을 향해 함께 매진할 때 온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다음과 같은 자세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南北이 서로 대화하는 일이다.

자주 만나서 의견차이를 좁혀야 한다. 통일국가로 가는 기초작업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것없이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민족의 번영과 영속성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엄청난 통일비용과 위험이 수반되는 민족과제이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엄동현〈부산시 진구 당감3동〉

장애인 車구입 혜택 中型까지 확대해야

국가가 장애자에게 주는 혜택중에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어 지적한다.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자동차세금을 면제해주며 1급부터 4급까지는 LPG(액화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없다. 장애자용 차량을 배기량 1천5백cc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형차를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러나 LPG용기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싣기 위해서는 중형차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는 중형차일수록 값이 싸고 소형차일수록 비싸다.

대부분의 장애자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가 혜택을 주려거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쳐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강장원〈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大田엑스포에 우리 모두 관심을…

이제 9일후면 '93大田세계박람회가 시작된다.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노력과 정열을 쏟아부었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大田엑스포는 경제 과학 문화의 대제전으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의 테크노피아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민족의 과학적 사고와 민족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87년도를 기준으로 3조6백43억원의 생산효과와 이에 따른 1조2천5백억원의 소득증가, 21만여명의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88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민족의 역량을 모아 大田엑스포를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에의 밑거름으로 삼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 못지않게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한 국가적 대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아무리 국가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무관심과 방관속에서는 성공적으로 치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얼마남지 않은 大田엑스포를 모든 국민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対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박철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외국인근로자 고용 국내中企 발전저해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주로 동남아 출신인 이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당장에는 노무관리부담 경감, 인건비 절감 등의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실업의 증가, 잦은 이직으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 저하, 제품의 품질불량 등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당장에 편하고 쉽다고 외국인들을 무작정 고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이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풍토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勞·使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동반자임을 인식할 때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현재의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발전해나갈 것이다.

표삼도〈부산시 남구 대연4동〉

日本 저질만화 침투 기성세대 책임크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만화중 50%정도가 日本만화의 복사판이라는 사실은 가위 충격적이다.

日本만화의 대부분이 대사만 우리말로 바뀌었을뿐 그림 자체는 그대로 복사된 채 만화가게나 문구점 또는 서점에서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어떤 책은 30만권이상이나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만화가 판을 쳐도 해당관련법규가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저작권자인 日本만화업자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을 일본만화에 길들이려 하는 日本만화업자들이 고발할 리가 없다.

따라서 日本의 무분별한 복제만화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것을 알고 익히기도 전에 日本저질문화에 잠식되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국이나 출판업자 학부모 등 우리 기성세대들은 저질스런 日本만화의 침투를 철저히 감시하고 막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형수〈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公職社會 크게 달라졌다

내무부, 2·4분기 지방자치단체 추진성과 분석

'윗물맑기운동' 의식·관행개혁으로 정착

서비스업체 위탁교육 등 對民서비스 提高

일선행정기관의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提高를 위해 은행 백화점 등을 찾아 위탁교육을 받는가 하면 각 市·道청사내 구내식당 이용객이 부쩍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올해 2·4분기중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윗물맑기운동' 추진성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일선민원현장에서의 서비스 개선 사례들은 '윗물맑기운동'이 공직사회의 의식·관행개혁운동으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내무부 분석결과 나타난 '윗물맑기운동' 주요추진사례를 보면 大邱시가 5월3일부터 18일까지 시내 대구은행에서 직원 3백24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 전국의 민원창구 공무원 2만1천명이 3백59개 서비스업체에서 위탁교육을 마쳤다.

점심시간의 풍경도 달라져 서울시 공무원의 외부음식점 이용이 평균 3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光州시청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1일 평균 1백30명에서 3백90명으로 3백% 늘어났다.

또 仁川 중구의 경우 직원 5백80명 전원이 6월1일부터 주2회 도시락을 지참하고 있다.

仁川 남구청과 충북 淸原군은 전직원이 자가용 짝·홀수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光明시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시청주차장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강원도는 자가용 출퇴근 대신 도보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편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3~4명 함께 타기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능률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들도 이뤄지고 있다.

釜山시는 불합리한 관행혁신 차원에서 간부회의를 주4회에서 2회로 줄였다. 경북도의 경우 도지사 결재업무 40건을 부지사전결로 하향조정했다.

또 경남도는 도지사 부속실에서 결재분을 일괄수합, 결재에 따른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크게 줄였다.

전북 金堤시는 점심식사후의 자투리시간을 활용, 주요업무를 협의하는 눈티타임(Noon Tea Time)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大邱시가 올 상반기중 소모품 사용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절약했고 같은 기간 경남도는 이면지 재활용을 적극 추진 3천7백여만원을 절감했다.

각 기관마다 허례허식을 대폭 줄여 불합리한 경조관행도 개선하고 있다.

大邱시는 직원이 상례를 당했을 때 조화대신 기관장 명의의 弔旗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기관장 화환 안 보내기'를 추진하고 있다.

〈徐光植〉



◇ '윗물맑기운동' 이후 일선행정기관에서의 민원서비스의 대폭적인 개선을 비롯,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裵權瀅〉

官街

셋째 月曜日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교통부

○…교통부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해 全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 시행 3개월째인 이 캠페인에는 26일 현재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포함, 1백%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교통적체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출·퇴근시에 매월 단 하루씩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소박한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에 일반 민간기업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어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週4回 직원 日本語 강좌열기 총무처

○…총무처는 국제화·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을 배양하기위해 지난 1일 부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日本語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강좌는 여가시간을 이용, 일본어를 배우자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

주4회(月·土요일 제외) 에 걸쳐 아침반(오전8시) 와 점심반(낮12시10분) 2개반으로 편성 각각 40분씩 운영되고 있는 일본어 강좌에는 현재 1백50여명이 등록, 수강하고 있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책상머리서 피상적으로 접하던 교통문제를 직접 실감할 수 있어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清白吏 列傳 16

中人신분으로 宰相 꺾은 気節

金壽彭은 英祖때 戶曹(재무부)의 衙前이었다.

미관말직의 자리였으나 국가재정을 아끼고 상관의 부정을 앞장서 저지했던 청백리이다.

아전은 원래 양반 아닌 中人계급출신으로 벼슬의 품계도 재직기간이 끝날때 고작 종 6품으로 그치고 녹봉도 형편이 없었다.

그러나 직책이 일선 행정의 실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손발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컸다.

그래서 아전들의 횡포와 부정이 심했고 그 時弊가 자주 상소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金壽彭은 강직 결백하기로 관리들 사이에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같은 아전으로 선혜청 창고지기인 동생집을 찾아갔다가 뜰에 늘어놓은 물감항아리를 발견했다.

생계에 보태기 위해 계수가 물감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형제가 모두 나라의 녹을 받는 처지에 궁하면 궁한대로 살것이지 우리보다 더 궁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먹고 살라고 이짓을 하느냐'고 꾸짖고 항아리속의 염색물을 모두 쏟아 버렸다.

한번은 급히 결재받아야할 서류를 갖고 재상집을 찾았는데 바둑에 정신을 뺏긴 재상이 여러시간, 여러번의 재촉에도 응답이 없자 바둑판을 손으로 흩어버리고는 뜰아래 부복했다.

'대감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国事를 늦출 수가 없어 한 일이오니 속히 소인 대신 다른 사람을 불러 서라도 결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고 사과했다.

어느 대감이 딸의 패물을 만들어주기 위해 戶曹의 광속에 있던 은덩이 몇개를 집어내는 것을 목격했다.

金壽彭은 '소인은 대감보다 딸이 더 많아 다섯이나 있으니 은덩이를 대감보다 더많이 가져가겠습니다'면서 은덩이를 집어들었다.

어안이 막힌 대감은 챙겼던 은을 도로 내놓았다.

그는 출생이 중인이고 관직이 일개 아전이었기 때문에 출생연월일이나 家系의 내력이 다른 관리의 行狀처럼 자세히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의 관리로서의 높은 気節만큼은 보통 大官들도 따르지 못할만큼 높았다. 〈津寬子〉

金壽彭

알아둡시다

HFC 134a

HFC(Hydrofluorocarbon, 수소화불화탄소) 134a란 지금까지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CFC)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기존의 프레온가스와 달리 화합물내에 오존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염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인체에 해가 전혀 없어 뛰어난 대체물질로 꼽히고 있다.

냉매 발포제 세정제 에어로졸 분사용제 등에 사용돼 온 기존의 프레온가스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꼽혀 자동차산업에서부터 정밀기기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자외선 照射에 의해 방출되는 염소원자와의 촉매반응으로 오존층을 분해, 파괴하는 물질로 지적돼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오는 95년 1월부터 86년도 사용량의 50%수준으로 줄이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프레온가스 대체물질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90년도부터 대체물질 개발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3일 科技院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HFC134a의 양산체제가 갖춰질 경우 우리나라는 프레온가스 관련 물질수요(92년 약5만6천t)의 40%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직, 高學歷者에 인기

올해 각종 公採 지원자중 71%가 大卒이상



◇ 최근 공무원이 신세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장래성이 있고 안정된 직업으로 인식되면서 大卒이상 고학력자들이 각종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몰려들고 있다.

新세대 職業觀 맞물려 확산 전망
對국민 행정서비스質 향상 기대

高學歷者들이 공직사회로 몰리고 있다.

문민시대 출범이후 정부의 개혁조치와 함께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공무원이 신세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안정되고 유망한 직업으로 손꼽히면서 대졸자들이 공무원사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일반행정 7급 2백대 1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결과에 따르면 30명을 모집하는 일반행정직 7급공채에 무려 6천2명이 지원, 공무원공채사상 처음으로 2백대1을 넘어섰다.

또한 전체적으로 32개 직종의 7백2명을 선발하는 이번 서울市 지방공무원 공채에 모두 2만5천5백78명이 응시, 평균 36.4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쟁률은 올해 제1차 시험에서 보인 지금까지의 최고경쟁률 19.7대1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보건직 9급에는 2명 모집에 5백73명이 몰려 2백86대1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토목직 7급이 93.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채에서는 특히 고학력자의 응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지원자중 38%가 대졸이상이고 33.3%가 대재(전문대졸 포함) 이상이었다.

이러한 고학력자의 공무원 선호추세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원 전형실의 陳在善씨(44·6급)는 "최근의 극심한 취업난과 97년까지는 공무원의 봉급을 현실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프라이드가 강한 이들 고학력자들이 공무원 사회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對국민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7일 정보·수사분야 경찰 1백90명을 모집한 제1회 학사경장 공채시험에도 예상외로 많은 3천3백23명이 몰렸다.

공직사회 발전에 긍정적

그동안 힘들고 고달픈 업무로 인기가 없었던 하위직 경찰시험에 서울大 高麗大 延世大 등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 39명이나 지원, 경찰 관계자들을 고무시켰다.

이번 학사경장공채 보안분야에 합격한 金栄三씨(26·全北大卒)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승진 등의 기회가 보장돼 있어 지원했다"며 "전공으로 배운 中国語를 최대한 활용해서 對中国분야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高學歷者들의 공직사회 진출 러시는 안정된 직장 및 충분한 여가시간을 통해 개인의 취미나 자기계발을 지향하는 신세대들의 직업관과 맞물려 더욱 확산, 공직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崔成演〉

지난주의 主要發表

외 무 부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28일)
법 무 부 검찰인사위원회(24일)
내 무 부 친절선행운전기사 발굴시상(27일)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실' 개관(28일)
농림수산부 신경제 3·4분기 추진계획 농정부문(22일)
건 설 부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중 수정보완사항 입법예고(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26일)
체 신 부 93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22일)
제1차 韓·中 체신부장관 회담 결과(24일)
산 림 청 야생화 盆 재배방법 개발(26일)
공 진 청 계량기 형식승인 사후관리 실시 및 형식승인 신청서류의 간소화(28일)
백열전구 품질향상 종합대책 실시 결과(27일)

다음주 行事메모

경제기획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표창/대회의실(30일)
외 무 부 동남부 아프리카지역 투자환경 설명회(8월4일)
문화체육부 '8월 안중근의 달' 기념 특별강연회/독립기념관 강당(8월3일)
보 사 부 '93 마약류 오·남용방지 제3차 캠페인/전국 市·道(8월1일~10일)
과학기술처 러시아科學技術 R&D 정보수집 처리 및 유통세미나/KIST 제4회의실(30일)
환 경 처 피서지 환경정화활동(31일)
정무2장관 한국카톨릭여성협의회/장관접견실(29일)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임시정부관련 학술회의/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30일)
공 진 청 '전자파장애' 연구센터 개소식/공진청內(8월3일)

※ 자세한 내용은 각부처 공보관실로 문의바랍니다.

公務員 소리



尹 鍾 善
〈중앙선관위 홍보과〉

선거지원 필요한 모든機關 성심껏 지원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쌓아온 선거지식과 관리경험을 토대로 국민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전국단위의 농·축·수협 및 노동조합 등 각종단체의 선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선거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선관위가 나서게 된 것은 우리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가 깨끗해야 공직선거와 같이 '큰 선거'도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거지원은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장비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선거규정 제(개)정을 위한 선거규정 예시와 선거관리에 필요한 실무편람을 제공하며 선거절차에 대한 안내 공명선거에 대한 강연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93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전국 3백23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천3백7개단체에 대하여 선거지원을 하였다.

그 중에서 선거지원을 받은 서울의 ㅅ국민학교의 어린이 회장선거는 가슴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학생들 스스로 선거규정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짐했다. 또 후보들은 선거를 깨끗하게 하자며 선물안돌리기, 집에 초대안하기를 사전에 약속하였고 소견발표회에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내걸어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반면에 아직까지는 선거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과 노동조합이나 학교관계자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으로 선거지원을 기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선거지원이 관권개입이라는 엉뚱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선거란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다. 작은 모임에서는 특별한 선거규정이 없어도 별문제없이 거수투표로도 쉽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구성원수가 많고 선거로 뽑힌 대표자의 권한과 임무가 커진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선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본으로 몇몇 노동조합, 초·중·고등학교 등의 선거규정을 수집·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복잡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거규정을 갖추고 올바른 절차로 치르면 결과에 대한 시비도 없을 뿐 아니라 예상치못했던 상황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도 학교를 비롯한 각종단체 등에 많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지원이 필요한 모든 기관·단체는 언제든지 전국의 市·郡·區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요청만 하면 성심 성의껏 지원할 것이다.

미래로 하나로…지구촌 축제를 편다

大田엑스포 10問10答

開途國-선진국間 벽을 넘어 공동번영에 기여

앞으로 9일 뒤인 8월7일 大田세계박람회가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른바 '하이테크 올림픽'이라 불리는 大田엑스포는 경제·과학·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세계 각국의 면모가 유감없이 펼쳐지게 된다. 특히 이번 大田엑스포는 개도국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서 경제도약의 전기를 이룰 중요한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大田세계박람회에 대해 大田엑스포조직위로부터 1문1답의 형식으로 알아본다. 〈편집자註〉

■ 엑스포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 국제박람회를 엑스포라 부른다.

엑스포지션(Exposition)의 앞 음절을 따서 만든 말이다. 엑스포는 商去來를 한 상품전시회가 아니다.

엑스포의 주된 목적은 일반대중의 교육과 계몽에 있으며 인류의 노력으로 이룩하고 발전시킨 성과를 전시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

■ 서울올림픽과 대전엑스포의 효과와 차이

- 올림픽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며 엑스포는 미래 지향적인 표현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

올림픽과 엑스포는 모두 개최국을 발전시켜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엑스포는 세계인들이 각각 그들의 과학 기술 문화를 과시하고 함께 나누는 지구촌 사람들의 나눔의 마당이다.

인류미래의 희망제시

서울올림픽은 東西冷戰의 벽을 허물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가장 모범적인 행사였다.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높여 주었고 対共産圈 교류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大田엑스포는 南과 北, 즉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력 격차를 허물고 인류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 엑스포 개최 효과를 수치로 계량할 수 있나.

- 엑스포의 개최효과를 수치로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 수치로 나온 개최 효과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산업연구원(KIET)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87년도의 산업연계표를 기준으로 해서 3조6백43억원의 생산효과, 이에 따른 1조2천5백억원의 소득증가와 21만7천명의 고용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단기적인 효과이지 장기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것은 아니다.

■ 大田엑스포가 경제도약과 과학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된다는데 왜 그런가.

- 이번 大田엑스포를 통해서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 자원 절약적·보존적 발전 방향 제시, 정보화 경제 촉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게 되고 상품의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의 조정, 기업의 국제화 및 시장 다변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엑스포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의 사례

- 日本은 1964년 도쿄(東京)올림픽을 치른 6년후인 1970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오사카(大阪)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오사카엑스포는 도쿄올림픽보다 10배나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 행사였다.

오사카 엑스포는 日本의 경제발전을 10년이상 앞당김으로써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루는 뿌리가 되었다.

■ 엑스포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나.

- 선진국 전시관에서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미래 문명을 예측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촌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존과 자원활용에 대한 각종 신기술을 관심있게 관람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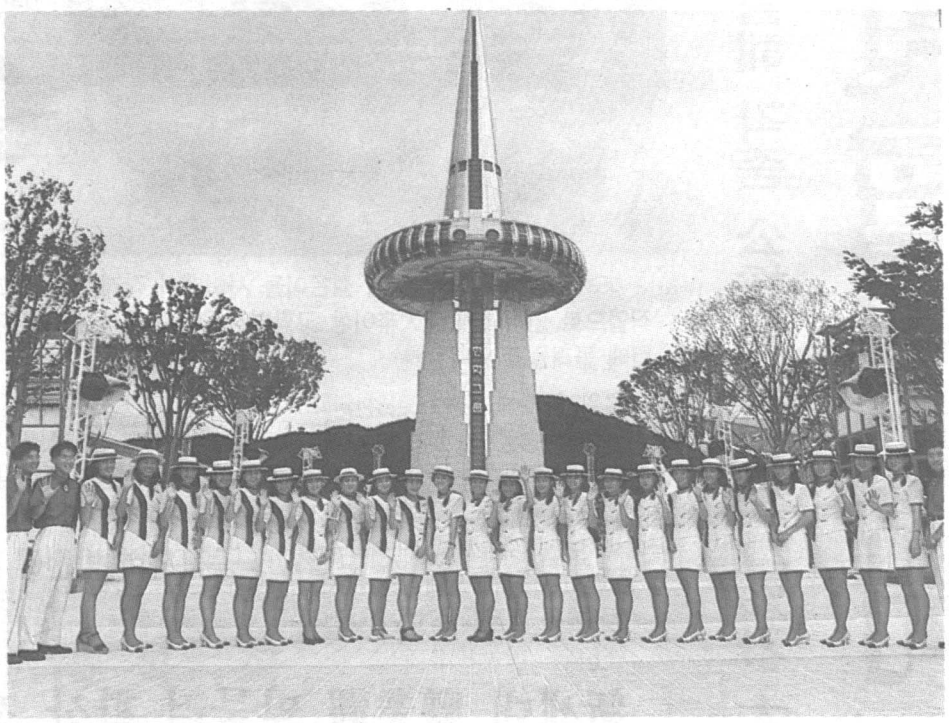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전시관에서는 참가국 특유의 전통기술과 국보급 문화재 및 유물 등을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관람하면 보다 흥미로울 것이다.

국내 전시관에서는 우리의 첨단기술과 발전상을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의 첨단기술과 새로 추구하는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눈여겨 봄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大田 엑스포 현장은 어떤 것들이 어떤 주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 大田 엑스포의 주제는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며 이에 따른 부제는 '전통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다.



◇ 大田엑스포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는 물론 경제측면에서도 엄청난 생산·소득·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엑스포의 꽃인 도우미들이 개막을 앞두고 친절봉사를 다짐하고 있다. 〈大田=裵權漢〉

전시구역은 국제 전시구역과 상설 전시구역으로 나누었다.

국제 전시구역은 '주제의 마당' '산업 번영의 현장' '세계인의 한마당' '문화창조의 마당'으로 나누어 새로운 도약에의 길과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인의 노력과 성과, 참가국과 국제기구들의 주제구현, 한국의 전통문화 등을 보여준다.

전통과 현대과학의 조화

상설 전시구역은 '인간과 통신의 세계' '환경과 자원의 세계' '미래의 기술세계' '탐험의 세계' 등으로 나누었다.

이 전시구역에서는 미래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간생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자원탐구, 무공해 에너지, 미래의 컴퓨터, 신소재와 우주개척, 미래 자동차 등을 보여준다.

■ 大田엑스포에 처음 선보이는 첨단 과학기술, 전시들은 무엇이 있나.

- 우선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시물로는 과학위성과 과학로켓이 있다.

박람회장 상공에 떠서 엑스포의 운영을 돕게 될 비행접시형 무인비행선은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차세대 꿈의 열차로 불리는 자기부상열차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개발한 것.

무공해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태양전지자동차 태양전지거북선과 고화질(HDTV) 텔레비전 엑스포 마스코트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꿈돌이 로봇 조각가 로봇 화가 로봇 탈춤 로봇도 선보인다.

지구관에서 보여주는 아이맥스 영화는 세계 최대의 것이며 이매지네이션관의 360° 멀티 슬라이드 영상물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다.

■ 행사후 시설은 어떻게 활용되나

- 大田엑스포가 끝나면 상설전시구역의 각 전시관과 국제전시구역의 전시관 일부, 그리고 엑스포극장 문예전시관 놀이마당 등의 문화예술 행사장을 영구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大田엑스포 기념 재단을 설립해서 다른 시설을 보완, 엑스포공원을 운영하게 된다.

이 공원은 大德과학기술 연구단지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그리고 국내의 관광객들을 위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대전엑스포의 정신을 계속이어 나가게 될 것이다.

경제再跳躍·과학발전에 새로운 힘 제공

87년 산업연계표기준 3조6백43억원 생산 효과

■ 엑스포 관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大田엑스포를 관람하려면 최소한 2박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관람객이 많이 몰릴 것이므로 가능한 한 평일을 이용하는 게 좋다.

승용차보다는 엑스포 전용열차나 기존열차, 엑스포 셔틀버스나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입장권도 미리 사두면 박람회장 매표소에서 줄 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음성자동안내인 700-1993(지역번호 없음)을 이용하면 알 수가 있다.

記事가 넘쳐 종합자료면 쉽니다.